

# 한국 근현대소설에 나타난 병리성과 문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이상 소설에 나타난 은유로서의 질병모티프와 글쓰기 방략을 중심으로

전 홍 남\*\*

## 차 례

1. 서론
2. 은유로서의 질병의 모티프와 병리성
  - 2.1. 李箱 소설의 창작모티프들
  - 2.2. 허구적 욕망으로서의 李箱 소설
3. 나르시시즘으로서의 자아분열과 소외
  - 3.1 신경증적 백일몽
  - 3.2 일상성 부정의 양상과 비극성
4. 글쓰기 주체의 존재론적 위상과 글쓰기 방략
5. 결론

## 1. 서론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이상만큼 논란의 정점에서 선 작가도 극히 드물다. 이상 문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어느 작가 못지않게 다양한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7-A00442)

\*\* 한려대학교 교수. chn0075@hanmail.net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학세계를 구명하려는 시도를 해 왔지만 명쾌하게 이상 문학의 본질을 구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도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기존의 연구물 중에는 이상 문학의 본질 해명에 유익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의미 있는 연구물들도 다수 존재한다. 자연히 이상 문학에 대한 연구물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상 문학(혹은 소설)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직도 이상 문학 연구는 현재진행형인 셈이다.<sup>1)</sup> 특히 이상의 폐결핵을 포함하여 그의 질병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문학의 본질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된다. 이를테면 김윤식은 “이상 문학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각혈과 관련된 자살과 죽음의 등가사상”이며, 이상의 “첫 번째 각혈에서 이상 문학은 비롯되었다”<sup>2)</sup>고 규정한다든지, 더 나아가 결핵을 전기자본주의의 소모개념과 연관시키며, 이상 문학을 개인사적인 것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가 본질적·결정적으로 앓았던 결핵을 공적인 자리에서 이끌어 올려, 공적으로 논의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sup>3)</sup>이라고 논의하는데, 이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관점이다. 그의 소설에서 질병 혹은 병 모티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의 메타포는 일제 강점기를 지배하는 보편적 수사(修辭)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이상 소설은 신경증적으로 분열된 서술자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단친 정신적 위기와 식민자본주의 말기에 접어든 근대사회가 지닌 병리적 현상을 풍자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측면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상 문학의 이러한 성격에 주목해서 그의 소설에 나타난 질병모티프와 그것이 갖는 병리적 상징성을

1) 강용운은, 이상 문학의 연구사를 개관하고 연구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상 문학에 흔히 지칭되는 '난해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 특유의 창작방법과 텍스트의 구조 원리를 찾아보는 한 방안으로 세계, 주체, 기호의 역동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요구되고 있음을 피력한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강용운, 『이상소설의 사사와 의미생성의 논리』(태학사, 2006), 11-36쪽 참조.

2) 김윤식, 『이상 연구』, 문학사상사, 1988(재판), 68쪽.

3) 위의 책, 137쪽.

글쓰기 전략과 관련시켜 접근해 보려고 한다.

현대 소설에 나타난 질병의 모티프와 그 병리성이 갖는 문학적 함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를 느낀다.<sup>4)</sup> 무엇보다도 한국 근현대사가 격동의 세월이었던 만큼 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의 질병은 단순히 신체상의 이상을 드러내기 위함은 아니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물론 작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작중인물의 질병을 통해 서사구조의 전환이나 복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선에 머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문학 속에 나타난 질병의 모티프와 그 기제의 병리적 상징 나아가 그것이 갖는 문학적 함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문학의 현실대응력을 조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5)</sup> 예컨대, 일제강점기<sup>6)</sup>의 경우만 해도 식민지 근대를 사는 문인들이 질환과 질병이라는 자기 안의 타자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곧 그들이 식민지 근대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 각자의 글쓰기가

- 
- 4) 본고의 출발점은 일제강점기 작품 속에서의 작중인물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작품의 서사구조의 전환이나 복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선에 머문 경우도 있겠으나, 질병의 모티프가 시대적 현실(혹은 아우라)의 우회적 표현을 위한 암시나 수사적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가정에 입각점을 두었다. 이 글은 우선 이상의 소설에 국한해서 출발했으며, 앞으로 대상 작가 및 작품들을 보다 확대해서 이러한 가정에 설득력을 수반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거나와 대상 시기도 전후소설로 확대하려고 한다.
- 5) 전후소설의 경우도 질병의 모티프 혹은 병리적 상징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관련되는 작품들이 많아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쟁과 같은 거대한 외상(trauma)을 겪고 난 직후 시기의 작가는 하마터면 자신이 겪을 수도 있었던 신경증을 작품을 통해 대신 겪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 근현대소설에 나타난 질병의 모티프와 그 병리적 상징에 주목해 볼 때 그것이 갖는 문학적 함의는 시기별로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의 차이를 해명하고 나아가 은유로서의 질병의 모티프와 병리학적 수사에 주목해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근현대소설의 현실대응력을 구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 역시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하게 될 것이다.
- 6) 식민지시대와 의미상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다만, 식민시대라는 표현 속에는 우리의 역사 주체를 피동적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비하하는 뉘앙스를 일부 함축하고 있는 듯해서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을 주로 쓰려고 한다.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식민지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떤 특징적 양상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매개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식민지시대 문인들 중에서 실제로 결핵을 앓으면서 자신의 질병에 관한 글을 쓴 문인은 현상윤·이광수·이상·김유정·채만식 정도이다. 특히 질병에 관한 이상의 문학적 상상력은 질병의 사실적 기록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곧 해부학과 세균, 보건 위생이라는 근대의학의 지식 체계에 의해서 자신의 신체 안에 있는 병이라는 타자와 마주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상의 문학이 보여주는 정신의 길항은 이 병과의 고투 속에서 진행된 측면을 안고 있다. 요컨대 개인의 신체라는 범주에서 진행된 질병의 수사학(해부학적 상상력)은 죽음에 임박한 자의 실존의식에서 비롯하는 나르시시즘의 모습으로 굴절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sup>7)</sup> 동시에 그의 소설에서의 질병의 모티프는 지식인으로서의 이상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와도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 나아가 질병의 사회적 의미는 근대를 강요받는 식민지 조선의 질병을 비판하는 기제로서 작용할 때 그 존재가 확인된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이상 소설에 나타난 '은유로서의 질병'<sup>8)</sup>

7) 보다 구체적인 것은 김면수, 「결핵의 수사와 임상적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제19호, 2001, 200-225쪽 참조. 이종화는 이상의 문학은 사회의 질병을 신경증적으로 고착된 인물을 통하여 상징한다는 마니에리즘(manierisme)적 의미로서의 나르시시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 이종화, 「1930년대 한국 심리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25-126쪽 참조.

8) 의료사회학에서는 질환(disease)과 질병(illness)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문창진, 『보건의료사회학』, 신광출판사, 1990, 289쪽).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구분은 비판받고 있으며 이전에는 '자연적' 범주로 여겨지던 대상, 다시 말해 질환과 몸도 이제는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에서 다루는 영역으로 여겨진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자연적' 범주란 것도 본질적으로 사실은 사회적 활동의 산물이며 단순히 불변의 생물학적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덧붙여 병(sickness)개념은 환자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가진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사라 네틀턴, 조효제 역,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7, 41-45쪽 참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의 '은유로서의 질병'의 차용은 Susan Sontag의 저서(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의 관점에 힘 입은 바 크다. 기독교적 죄의식과 관련된 폐병의 이미지는 정화(淨化)된 삶을 상징하기도 한다. "결핵이 폐, 몸 위쪽으로 있는 영적으로 확장된 기관과 관련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암은

의 모티프와 그 기체의 병리적 상징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상의 글쓰기 방략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근현대 소설에 나타난 병리성과 그것이 갖는 상징성을 추출함으로써 문학의 현실대응력의 조감하는 또 하나의 유의미한 단서를 해명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2. 은유로서의 질병의 모티프와 병리성

### 2.1. 李箱 소설의 창작모티프들

이상 소설에 접근해 나가기 위하여 본고는 우선 덴디즘의 견지에서 그의 작품에 나타난 창작모티프를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김윤식은 이상 문학의 특성을 형성한 주요한 인자로 ① 결핵, ② 공학기사 출신, ③ 모더니즘 등을 거론하고, 일차적으로 이상이 폐결핵 환자였음을 중시하여, 그의 문학을 ‘결핵문학’의 일종으로 설명하였다.<sup>9)</sup> 그러나 작중인물이 겪는 기본적인 갈등의 창작모티프 역할을 한 이상의 사적 체험은 크게 세 가지이다. 그것은 ①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 ② 신병에서 오는 갈등, ③ 여성관계의 부조화에서 오는 갈등<sup>10)</sup>이다. 여기서는 신병에서 오는 갈등에 주안점

---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신체부위(결장, 방광, 직장, 유방, 자궁, 전립선, 고환 등)에 침범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앞의 저서, 32쪽), 이런 점에서 “매독은 은유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질병 자체는 신비스러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무시무시한 질병일 뿐이었다”(위의 책, 91쪽). 이 글에서 작중인물이 대체로 결핵(폐병)이나 신경쇠약을 앓고 있는 경우에 보다 주안점을 두는 것도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다.

9) 김윤식, “결핵의 속성과 결핵문학”,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8, 109-142쪽

10) 이상의 소설에서 여성관계의 부조화에서 오는 갈등이나 여성체험은 그의 소설에서 주요한 창작모티프이다. 다만, 여기서는 자칫 이 글 논의의 초점을 흐릴 소지를 안고 있어 여성관계의 부조화 및 여성체험은 소략적인 언급에 머문다. 특히 그의 후기 소설에서는 여성과 신병이라는 소재는 나르시시즘적인 소외 양상을 구현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를테면, 이상은 그가 파악한 식민지체제하의 1930년대 조선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여성이라는

을 두려 한다.

신체적 질병은 사회적 부적응과 이상성격을 가져오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으로 작용함을 많은 심리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H. Ellis는 폐결핵 환자의 퍼스널리티에 대하여“정신적 고양, 과도한 흥분성,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광적으로 일에 매달리는 경향”등을 거론하고,“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며, 신경쇠약적인 증세와 함께, 그들이 지닌 광적인 활동성, 끊임없는 변덕, 느낌에 대한 예민함 등이 때때로 그들을 천재로 보이게 한다”<sup>11)</sup>고 지적하고 있다.

폐결핵이라는 치명적인 신병 체험<sup>12)</sup>에서 오는 갈등은, 그의 모든 소설 작품에 내적 모티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래에서 인용되는 문면에도 폐결핵에 의한 갈등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아 그러나 인제는 다 틀렸다. 봐라. 내 팔. 皮骨이 相接. 아아아아. 웃어야 할 터인데 筋肉이 없다. 울려야 筋肉이 없다. 나는 形骸다. 나-라는 정체는 누가 잉크 짓는 약으로 지워 버렸다. 나는 오직 내-痕迹일 따름이다. (중략) 十二月 二十三日 아침 나는 神保町 陋屋 속에서 空腹으로 하여 發熱하였다. 發熱로 하여 기침하면서 두 별 편지는 받았다. (『失花』, 369)<sup>13)</sup>

第二次의 咯血이 있는 後 나는 어슴푸레하게나마 내 壽命에 대한 觀念을 把握하였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사월로 들어서면서는 나는 얼마간 기동할

---

문학적 장치로 설정하였다. 이상이 당대의 사회에 대한 인식행위에서 얻어진 결론을 자신의 여성체험과 결부시켜 소설화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과 연관된다. 한마디로 이상의 소설에서 여성의 본질은 자본주의적 근대사회가 지닌 속악성이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이종화, 앞의 논문, 134-147참조.

- 11) H. Ellis, *Disease and Novel*, 1880-1960, The Macmillan Press, 1985, 5-6쪽 재인용.
- 12) 죽음의 질병이면서 소모적 열정, 낭만적 사랑으로 미학화되던 폐결핵은 60년에 들어서면서 치료 가능한 질병이 된다. 더욱이 당시의 폐병은 가난한 환경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었다.
- 13) 김윤식 편, 『失花』, 『이상문학전집』 2권, 소설편, 문학사상사, 1991, 369, 앞으로 이상의 작품은 여기에 의존하며 말미에 작품명과 인용한 쪽수만 밝혀둔다.

정신이 났다. 嗜血하는 度數도 훨씬 뜨고 또 分量도 훨씬 줄었다.(중략) 빨리 運搬해야 한다. 그 惡臭가 가득한 肉身들을 피를 吐하는 내가 현 구루마 위에 걸레짝 같이 실어 가지고 運搬해야 한다.(『恐怖의 記錄』, 190, 201)

쏟아뜨릴것이다 사람은 딱정버리지처럼떨것이다 따뜻할것이다 넘어질것이다 새까만핏조각이땡그렁소리를내이며떨어져꺼어질것이다 땅위에늘어붙을것이다 내음새가날것이다 굳을 것이다 (『地圖의 暗室』, 167)

보름—이과랑게질린수염자국-헝하눈-늘씬하게만연되나마나하는형영없는 營養을-보아라.(『蜘蛛會豕』, 301)

내가 이래봐도 體重이 十四貫이나 있다고 일러드리면 貴下는 알아차리시겠소? 즉 이 身이 銃알을 집어 먹었기로서니 좀처럼 나기 어려운 空洞을 보이는 것은 말하자면 나는 전혀 腦髓에 무게가 있다. 이것이 貴下가 나를 겁낼 중요한 秘密이되다 (『童孩』, 264-265)

열 세벌의 遺書가 거의 完成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을 집어 내보아도 다같이 서른 여섯 살에 自殺한 어느 天才가 머리말에 놓고 간 蓋世의 逸品の 亞流에서 一步를 나서지 못했다. 내게 요만한 재주밖에는 없는 나는 것이 다시 없이 분하고 억울한 事情이었고 또 焦煤의 根元이었다.(『終生記』, 380)

인용한 대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이상의 거의 모든 소설에 폐병과 자살충동의 퇴영적 양상이 나타난다. 「12월 12일」(1930)이후, 1935년경부터 여성관계를 소재화한 소설 창작이 재개되기까지의 4-5년간 그는 주로 시에 열중한다. 이 기간 중 창작된 소설은 「休業과 事情」 그리고 「地圖의 暗室」 두 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두 편의 소설은 전적으로 신병에서 오는 갈등의 창작모티프에 의해 씌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여성 체험과 신병 체험이 함께 어우러진 35년 이후의 작품과는 소재적 측면에서 다르며, 주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李箱의 소설 중 여성 체험이 등장하

는 소설들의 모티프는 '금홍'<sup>14)</sup>으로 대표되는 '倒着된 부부관계'의 모티프, 순영으로 대표되는 '삼각관계'의 모티프, 정희로 대표되는 '러브게임'의 모티프로 이루어지며, 이들이 서로 결합되기도 하고, 폐결핵이라는 모티프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면서 일련의 소설들로 구체화 된다.<sup>15)</sup>

## 2.2. 허구적 욕망으로서의 李箱 소설

J.라캉은 인간을 결핍상태에서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인간은 결핍된 욕망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 욕망은 하나의 신기루처럼 잡는 순간 저만큼 물러난다. 그러기에 욕망은 하나의 환유이며 허구이고 욕망의 완전한 충족은 죽음밖에 없다.<sup>16)</sup> J.라캉이 허구적 욕망의 반복구조를 은유와 환유로 설명하고 있다면, R. 지라르는 매개자(mediator)의 존재를 설정한 '삼각형의 욕망'으로 욕망의 허구성을 설명한다. 주체는 어떤 대상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개자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이다. 돈키호테는 아마디스라는 매개자를 통하여 이상적인 기사와 용기와 사랑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돈키호테의 욕망은 실은 아마디스의 욕망이며, 돈키호테가 스스로 믿었던 자신의 욕망은 허구인 셈이다.<sup>17)</sup>

이러한 욕망의 허구성이 신경증적으로 분열된 두 자아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 이상 소설의 기본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의 허구성은 작가 이상의 문학적 선택과도 관련된다.

李箱은 우수한 성적으로 경성공고를 졸업한 뒤, 20세의 나이로 총독부 기사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이 시절 李箱의 '생의 욕망'(Lebenstrieb)이 지향하는 궁극점은, 전문 기술 인텔리로서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으면서

14) 김윤식, 『이상소설연구』, 문학과비평사, 1988, 79쪽, 100-102쪽에 의하면 '錦紅'의 본명은 '蓮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연심'의 이름이 '날개'에 거듭 나온다.

15) 각주 10) 참조.

16) J. Lacan, 권택영 역,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15-19쪽 참조.

17) R. Girard, *Desire, and the Novel*.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6, 1-9쪽 참조.



(이것은 어릴 때부터 강박적으로 그를 억눌러 온 적빈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동시에 화가나 문학인으로서도 인정받는 대가가 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와 백부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에게 예고 없이 다가온 신병은 그의 삶의 목표를 수정하게 만들었다. 李箱이 「12월 12일」의 서문에서 “죽지 못하는 실망과 살지 못하는 복수 사이에서, 최후의 칼인 펜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 선언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문학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던지겠다는 각오를 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李箱의 자아는 ‘天下 눈 있는 선비들의 肝膽을 서늘하게 할’(『終生記』, 375) 최대의 걸작을 남기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육신을 좀먹는 결핵은 이러한 도달점에 이르는데 결정적 장애물이 된다. 그 결과 그는 두 개의 대립된 욕망 사이에서 심각한 기본적 갈등에 빠지게 된다. 자신이 설계한 인생을 무로 돌리려는 결핵균은 당시의 의료기술 수준의 낙후성에 의해 치명적인 것이 되고, 그는 그로 인해 불안을 경험한다. 결핵균에 대한 적대감은 지각할 수는 있으나 해소할 수는 없다. 병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점점 약화된다. 그의 죽음은 이제 불가피한 것으로 확정된다. 그는 이러한 절박한 딜레마에서 비극적 탈출을 시도한다. 그것이 문학에의 전념이다. 그것이 비극적인 이유는 일면 그 행위가 갖는 현실적 부적절함에서이며, 일면 그 행위가 갖는 정신적 치열함에서이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병·가난 등의 딜레마를 포함한 자신의 일상적 자아에 대해 문학을 통한 도박을 한 것이다.<sup>18)</sup>

치명적인 신병에 대해 문학이라는 비극적 해결책을 시도하면서, 그는 자신의 딜레마 (육체적 핸디캡과 문학적 야망)를 일거에 해소시켜 줄 매개자(R.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루게 될-)<sup>19)</sup>를 구한다. 그

18) 「종생기」에서 문학적인 상상력과 장치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위기에 놓여 있는 몸의 실존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자살이라는 어쩌면 글쓰기 주체의 최소한의 의지조차 상실한 상황에서의 문학적인 유희란 그것이 유희라기보다는 철저한 실존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종생기」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와 근대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이재복, 『한국문학과 몸의 시학』, 태학사, 2004, 195-231쪽 참조.

19) R. Girard, 같은 책, 2-3쪽 참조.

것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茶川龍之介, 牧野信一” 『私信』 7,222) 등의 일인 작가가 되며, 자신의 모습을 이들의 이미지로 뒤집어 씌운다. S.프로이트의 방어기제로 본다면 동일시(Identification)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시 과정은 허구적 욕망의 문학적 수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시 과정에는 高銀의 지적처럼 폐병에 대한 당시의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창백한 인텔리 기질에 합당한 감상, 자학적 지성에 대하여 어떤 명예와도 같은 淫蕩的 속성”<sup>20)</sup>—도 일조를 하였다. 그리하여 李箱의 자아는 이들 일인 작가의 모습과 욕망을 모방한 ‘위장된 자아’(가면: persona)<sup>21)</sup>로 대체되어 소설 텍스트의 내포작가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위장된 자아’는 실제 작가 李箱의 ‘본연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허구적 욕망’의 존재이며, ‘삶의 욕망’이 아닌 ‘죽음의 욕망’(todestriebe)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매개자가 지닌 이러한 죽음의 욕망은 이상이라는 주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욕망이 아니며, 자기 아닌 타자가 되고픈 모방의 욕망으로서, 자아가 원하는 진정한 욕망과는 본질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위장된 자아’인 내포작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그의 문학에서는 생의 욕망과 죽음의 욕망이 착종되어 나타나게 되며, 그 구체적 양상으로는 자살충동과 동반자살의 충동, 새디즘과 매저키즘, 퇴행 현상과 러브게임 등의 착종이 된다.

李箱의 소설이 지닌 어조의 불일치성(조증과 울증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듯한 어조의 난맥상)은 바로 이러한 내포작가의 상호 모순된 욕망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 모습은 신경증적 자아분열상을 보이는 인물의 형상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신경증적 자아분열의 과정은 李箱 자신의 말, “절망은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EPIGRAM』, 239)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1930년 『朝鮮』지에 연재된 「12월 12일」이 李箱 문학의 출발점으로서의

20) 고은, 『이상 평전』, 청하, 1992, 182쪽.

21) J. Jacobi, 이태동 역, 『칼 융의 심리학』, 성문각, 1992, 44-51쪽 참조.

의의를 지니고 있다면, 「逢別記」는 이상 문학의 분기점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逢別記」를 전후로 하여 李箱의 문학은 관심의 수평적 확대를 가져왔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逢別記」는 1936년 12월 『女性』지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逢別記」의 소재가 되었던 이른바 ‘錦紅 데카당스’는 1933년에 일어났다. 李箱은 1926년 자신의 화가로서의 꿈과, 백부가 강요한 세속적 권유를 절충하여 경성고공 건축학과로 진학한다. 그 뒤 1929년 졸업하여 건축기사로서 총독부 산하관리로 취직한다. 「12월 12일」은 이 시기에 나온 것으로서, ‘構造 基督’으로서의 백부로 상징되는 봉건적 가치규범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백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정신적 독립을 선언하는 창작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연재 도중 폐결핵이 발병하고, 이 신병은 李箱에게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자살”(68)로 육박하게 된다. 이듬해인 1931년 백부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아를 결박하고 있던 질긴 끈 하나는 사라진 셈이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굴레로서 나타난 폐결핵이란 신병은 불가항력적으로 삶을 움죄게 된다. 그 결과 1933년에는 폐결핵의 악화로 기수직을 버려야 했다. 죽은 백부의 유산을 나누어 23년 만에 실부모에게 돌아갔으나, 가족의 무지와 貧乏을 증오하게 되어 겨우 효자동의 가족과 15일 간 동거한 후,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출분하여 구본웅과 백천은천으로 요양을 떠난다. 그러나 요양은 허울일 뿐 ‘금홍’이라는 작부를 만나 퇴폐적 행태를 보이게 된다.<sup>22)</sup>

이러한 전말을 담은 「逢別記」에서 나레이터는 자신의 신병을 이야기함에 있어 자기과시적인 어조를 구사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이전의 소설들(「12월 12일」, 「地圖의 暗室」)의 진지한 어조와는 판판이다.

<가> 나는 전연 실망 가운데 있다. 지금에 나의 이 무서운 생활이 노위에 선도승사의 모양과 같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12월 12일」, 68)

22) 이상의 전기적 사항은 고은, 「이상 평전」을 주로 참고했음.

<나> 죽음이그에게왔다고 그는놀라지않아본다 죽음이목적한것이라면 나머지얼마안되는시간은 죽음이하자는대로하게내어버려두어 일생에없던가장위생적인시간을향락하여보는편이 그를위생적이게하여 주겠다고 그는 생각하다가 그러면그는죽음에 건디는세음이나못 그러는세음인것을 자세히알아내이기 어려워괴로워한다 죽음은 평행사변형의 법칙으로 보이샤아르의 법칙으로 그는앞으로 앞으로걸어나가는데도왔다 떼밀어준다 (중략) 그는그런다 이곳에서흠어진채 모든것을다끝을내어 버려버릴까이런충동이땅위에떨어진팔에 어떤경향과방향을 지시하고그러기시작하여버리는 것이다 그는무서움이 일시에 치밀어서성내인얼굴의성내인 성내인것들을해치고 핵앞으로나아선다. (『地圖의 暗室』, 170-171)

<다> 스물세살이오 ---三月이오 嗜血이다. 여섯달 잘 기른 수염을 하루 면도칼로 다듬어 코 밑에 다만 나비만큼 남겨 가지고 藥 한 제 지어 들고 B라는 新開地 한적한 溫泉으로 갔다. 게서 나는 죽어도 좋았다.

그러나 이내 아직 기를 펴지 못한 靑春이 -藥탕관을 붙들고 늘어져서는 날 살리라고 보채는 것이 어찌하는 수가 없다. 旅館 寒燈 아래 밤이면 나는 늘 억울해 했다.(『逢別記』, 348)

위의 인용문 <가>와 <나>에서는 죽음에 대한 암울한 예감과 불안감이 질게 드리워져 있다. 특히 <나>에서는 엄격하고 빈틈없이 피할 수 없이 다가서는 죽음에 대한 예감이, “죽음이 평행사변형의 법칙으로 보이샤아르의 법칙으로 그에게 온다”라는 문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폐병환자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이라도 느끼는 듯한 자기과시적 태도와 절망적이고 체념적인 태도가 엇갈린다. 작위적이고 이중적이다. 일관성이 결여된 채 자기과시와 자기비하가 반복되는 어조의 착종을 보인다.<sup>23)</sup> 그리고 이러한 어조의 착종은 「날개」, 「종생기」, 「실화」, 「단발」, 「지주회시」, 「동해」 등 여성관계를 소재로 한 소설 모두에게 동일하게 반복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의 신병에 대한 내포작가의 태도는 이전의 작

23)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임명섭, 「봉별기, 긍정의 탐색과 좌절」, 『이상소설작품론』, 역락, 2007, 153-170쪽.

품에 비해 훨씬 객관적이고 초연하다. 이렇듯 신병에 대한 객관적이고 초연한 태도를 내포작가가 갖게 되기까지는 1932년 「地圖의 暗室」 이후 3-4년의 기간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어조의 차이는 1935년 이후에 나온 여성관계 소재의 소설과 1932년 이전에 나온 소설의 질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전기의 소설에서 李箱 소설의 소재는 자신의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자신의 신병에 국한된다. 그러나 후기의 소설에서 소재는 여성관계의 부조화로 변모된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육친으로부터 타자인 여성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된다. 물론 후기 소설에도 신병에 대한 내포작가의 관심이 나오지만 그것은 전기의 소설처럼 진지하거나 심각하지 않고 오히려 작위적이고 의례적이다.

그리하여 후기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또한 이와 같은 소재적 차이보다 더 근원적인 변화는) 자신의 신병에 대한 태도의 변화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비교적 전기의 작품에 등장하는 나레이터는 신병과 그로 말미암아 예견되는 죽음에 대하여 극도의 예민함과 절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24)</sup> 그러나 후기의 소설에서 나레이터는 신병이나 죽음까지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자신의 한 존재요소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전기 소설에서 폐병과 죽음의 문제 자체가 주제 차원에서 다루어졌다면, 후기 작품에서는 어떤 다른 주제를 위한 하나의 기법 차원으로 격하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작가 이상의 정신적 성장과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즉, 「12월 12일」, 「休業과 事情」, 「地圖의 暗室」 세 편은 폐결핵의 발병이 가져온 정신적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창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작가적 관심이 자신과 자신의 둘레에 고착되어 있다. 반면에 후기의

24) 김승옥의 일부 작품(「생명연습」, 「환상 수첩」, 「무진기행」)에도 '폐병'이라는 병리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 바, 그 폐병에는 감수성과 위악성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그 이전 문학사에 자주 사용되던 폐병의 이미지에 새롭게 위악성이 추가된 것이다. 김승옥 소설에서의 폐병은 죽음의 병이 아닌 더 강한 생명에의 욕망을 보여주는 기호가 된다.

소설은 폐결핵을 자신의 존재조건으로 수용하면서, 좀 더 성숙한 작가의 식으로 결핵을 하나의 창작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기가 자신의 신변사에 집착하고 있는 단계라 한다면, 후기는 사회화한 타자의식의 단계로 해석된다.

전기에 해당하는 소설은 「12월 12일」, 「휴업과 사정」, 「地圖의 暗室」 등이 다. 25) 여기서 내포작가의 관심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차원에 머물러 있다. 백부나 'SS', 분열된 일상적 자아를 매개자로 하여 봉건적 가치규범이나 일상적 삶의 범속성을 부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후기의 소설에서 내포작가의 관심은 사회적 자아의 “대칭점 찾기”(「12월 12일」, 23)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이상의 소설은 타자의식의 사회성을 획득한다. 폐결핵이라는 신병은 이 때 단지 개인적 질병에서 병리학적인 시대상황으로서의 의미를 회복하게 된다. 26) 이상의 자아분열적 형태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나르시시즘도 역시 소외된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하나의 병적 상황이다. A. 하우스저의 말대로 “나르시시즘이 없는 소외는 있을 수 있지만, 소외와 무관한 나르시시즘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7) 이상의 후기 소설에서 나오는 여성과 신병이라는 소재는 이러한 나르시시즘적인 소외 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이다.

이 시기의 소설에서 허구적 욕망을 대변하는 현재적 자아는 여성(일상

25) 이상의 7년 남짓한 짧은 문학 활동기간을 편의상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은 의외로 그의 문학을 매듭있게 조망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보통 1933년 이후를 이상 문학의 '후기'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도의 암실」은 초기 쪽에 속하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작품의 성격이 두 시기 사이에 걸쳐 중요한 특징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은 김성수, 「지도의 암실-문학적 글쓰기와 탈근대적 실험과 수사학의 본의」 역락, 2007, 31-69쪽 참조.

26) 이상의 소설 외에도 그 밖의 1930년대 심리소설 중에도 일부 이러한 현상이 감지된다. 소외자의 비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결핵이라는 신병을 부가하고 있는 경우인데, 최명욱, 정인택의 일부 작품에서도 문학적 은유로서 폐결핵을 주인공의 신병으로서 채용하여 주인공이 처한 비극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27) A. Hauser, 김진욱 역, 『예술과 소외』 종로서적, 1982, 154쪽.

성)이라는 타자를 자기 수중에 뭉으로써 삶의 대칭점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한 양상은 신병과 동일시된 여성에 대한 새도·매저키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시기의 소설에서 욕망의 1차 매개자는 여성이지만 그러한 매개자를 통한 욕망이 허구임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욕망의 매개자(삶의 대칭점)는 빈칸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여성으로 대표되어 있는 속악한 자본주의적 조선 사회를 부정하고, 나아가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조차 부정함으로써 삶의 무의미와 권태를 드러내려는 것이 이 시기 이상 소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李箱 문학은 허구적 욕망에서 출발하며, 그 결과 내포작가의 신경증적 자아분열과정으로 나타난다.

### 3. 나르시시즘으로서의 자아분열과 소외

#### 3.1. 신경증적 백일몽

李箱의 문학을 나르시시즘이라 할 때 그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다. 우선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작태도로 볼 때, 李箱은 자신의 사적체험을 소재화하였다는 의미에서이다. 李箱의 작품에 등장하는 서술자는 실제작가 李箱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자신의 사생활을 소재화하였다는 의미에서 李箱의 소설은 나르시시즘 문학이며, 사사끼 겐이지의 용어로 본다면 “낸디즘의 문학”이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처럼 자기에 빠져 있고 자기 관찰에 몰두한다.

사적체험의 소재화라는 李箱의 독특한 창작태도는 그의 소설을 백일몽의 문학으로 만든다. S.프로이트는 “모든 글쓰기는 끊임없이 전이과정을 거치지만 궁극적으로 작가의 어떤 백일몽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심리작가는 자아관찰을 통해 그의 자아를 여러 조각의 자아로 조각내고, 그 결과로 자신의 정신생활의 갈등과정을 몇몇 주인공 속에서 구체화시킨다.”<sup>28)</sup>고 지적한다. 이러한 말은 李箱 소설의 특징에 잘 들어맞는 말이다.

李箱 소설은 자신의 사적체험을 소재로 자신의 갈등(신병이나 가족관계에서 야기되는-)이나 관심사를 드러내는 식으로 창작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백일몽의 의도는 본문 중의 서술자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네시에누우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아홉시에서 열시까지리상  
---- 나는 리상한 우스운사람을아안다 물론나는그에대하여 **한쪽보려하는것**  
**이거니와**(「地圖의 暗室」, 164, 이하 진하게 강조 표시: 필자)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疲勞했을 때만 精神이 銀貨처럼 맑소. 니코틴  
이 내 회사 배앓는 속으로 스미면 **머리 속에 으레히 白紙가 準備되는 법**  
**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파라독스를 바둑 布石처럼 늘어놓소. 可惜**  
**할 常識의 病이오.**(「날개」, 318)

그대 자신을 僞造하는 것도 할만한 일이오.(「날개」, 318)

虛脫이야 殘存하는 또 하나의 李箱 九天을 우러러 號哭하고 (「終生記」,  
385)

난마와 같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얼마간 悲劇的인 自己探求**(「終生記」,  
386)

위 예문의 고딕표시 부분을 보면, 자기관찰적인 태도로 의도적인 백일몽을 창조하려는 이상의 창작 태도를 감지할 수 있다. 李箱이 이처럼 사적체험을 소재화한 백일몽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소설양식에 대한 독자의 기대지평을 흔드는 낯설게하기의 효과, 둘째, 자신의 위기와 사회의 병리구조를 동일시함으로써, 소외의 만연과 비극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李箱 문학의 나르시시즘이 지닌 본질적 중요성은, 사적체험의

28) S. Freud, 하정일 역, 「창조적 작가와 백일몽」, 마광수 편저, 『심리주의 비평의 이해』, 청하, 1992, 14쪽.



소재화 경향에 있지 않다. 李箱 문학은 사회의 질병을 신경증적으로 고착된 인물을 통하여 상징한다는 마니에리즘적 의미로서의 나르시시즘이다.

A. 하우스저는 마니에리즘(manierisme)을 매너리즘(mannerism)과 구별하여, “소외라는 고정화된 관습(convention)을 전환(conversion)시키려는 의지가 예술상에 나타난 것”으로 간주한다. 소외란 사회-심리적으로 고정화된 정신, 자아의 분열, 인간관계의 비인격화와 물화 등으로 특징되는 고정화된 일종의 관습(컨벤션)이며, 그러한 컨벤션에 대한 예술적 전환의지가 마니에리즘이라 규정한다. 그리고 문학에서의 나르시시즘이란 소외에 의한 자아와 세계와의 분열 및 자아의 서로 모순되는 충동 등의 표현으로서 마니에리즘의 한 경향이라고 지적한다.<sup>29)</sup> 나르시시즘으로서의 李箱 소설의 의의는 이러한 마니에리즘적 관점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러한 마니에리즘적 의미로서 李箱 소설은 신경증적 백일몽의 문학이 된다. 李箱의 소설에 등장하는 서술자는 나르시스트이고 신경증적으로 분열된 인격의 소유자이다. 그는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킨다. 그는 자신만을 존경하고 타인들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한다. 외면상 그는 아주 오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함은 실은 좌절된 원망(願望)의 역설적 표현이다. 李箱은 신경증적으로 분열된 서술자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닥친 정신적 위기와 식민지자본주의 말기에 접어든 조선사회가 지닌 병리적 현상을 풍자적으로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李箱의 창작태도는 병든 사회에 대한 인식과 소재로서의 자신의 사적체험을 융합시키는 것이다. 신경증적으로 분열된 서술자의 즉자적(卽自的)이며 퇴폐적인 형태를 통하여 일상성을 부정하는 것, 그럼으로써 주체의 실존적 존립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상 소설이다.

이러한 일상성의 부정을 위해서 그가 사용한 상징적 장치들은 “構造基督”으로 설정된 ‘백부’(「12월 12일」), 범속성(凡俗性)을 대표하는 ‘SS’(「休業과 事情」)와 내포작가의 현재적 자아(「地圖의 暗室」), 그리고 ‘여성’(여성 소재의 소설 전체) 등이다. 이러한 상징적 장치들을 사용하여 그와 관

29) A. Hauser, 김진욱 역, 『예술과 소외』, 종로서적, 1982, 153-172쪽.

려된 욕망의 허구성을 보여줌으로써 李箱의 소설은 일상성의 부정을 피하게 된다. 이러한 일상성의 부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품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休業과 事情」과 「地圖의 暗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 3.2. 일상성 부정의 양상과 비극성

「休業과 事情」(1931), 「地圖의 暗室」(1932)의 두 편에서는 범속성에 대한 부정과, 현존재(Dasein)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나타난다. 「休業과 事情」은 작가적 서술자가 '李甫山'이라는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이웃 집 사는 'SS'와의 생활을 서술한 것이다. 이 소설은 인과관계에 의한 추보식으로 진행되며, 전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내적독백의 문체로 되어 있다. 서두에서 서술자는 이 글이 '보산'과 'SS'의 사이에서 그들의 생활을 보고 기록한 것임을 밝힌다.

삼년전이보산과SS와 두사람사이에 끼어들어앉아있었다. 보산에게다른길  
이쪽을가르쳐주었으며 SS에게다른 길길저쪽을가르쳐주었다. 이제담하나를막  
아놓고이편과저편에서 인사도없이그날그날을살아가는보산과 SS두사람의 삶  
이어떻게하다 가는가까워졌다. 어떻게하다가는 멀어졌다 이려는것이 껍데미  
있었다.(149)

이 작품에서는 '보산'과 'SS'가 대조적으로 제시된다. 'SS'는 범속한 일상적 삶을 대표한다. 거기에 대하여 '보산'의 자아는 현재적 자아(일상적 자아)와 본래적 자아(이상적 자아)로 분열되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적 자아는 범속한 일상적 삶을 부정하지만, 본래적 자아는 그러한 현재적 자아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범속한 삶을 부정하고 "훌륭한 시"를 쓰겠다는 욕망에, "타자의 욕망을 모방한 허구성"<sup>30)</sup>이 깃들여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품 말미에서 본래적 자아의 자기연민으로 뚜렷해진다.

30) R. Girard, *Deceit, Desire, and the Novel*,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6, 8쪽.

현재적 자아는 범속성을 부정하고 문학에 전념하는 것에서 욕망의 충족을 구하고, 본래적 자아는 그것을 부정하는 자세를 취한다.

이 작품에서 'SS'로 대표되는 일상은 범속성이며, 후기작에서는 '여성'이라는 상징을 빌어 속악성(俗惡性)의 차원으로 악화된다. 현재적 자아는 새디즘적으로 여성을 자기의 손아귀에 뚝으로써 일상성을 추구하려 하나, 본래적 자아는 매저키즘적으로 그것이 허구적 욕망임을 일깨운다. 이때 본래적 자아는 여성뿐 아니라, 문학이나 신병, 가족사에 관련된 비참한 자기확인을 서술함으로써 현재적 자아가 갖는 일상성을 철저히 부정한다.

서술자의 분열된 형태를 통해, 주위에 있는 인간 군상으로부터 확인되는 범속성과 속악성—그것은 작가가 파악한 당시의 세계상이다. 그리고 그러한 범속성과 속악성을 작가는 '백부', 'SS', '여성' 등의 상징적 장치로 설정하여 부정한다.

그러나 이렇듯 타인의 일상성을 부정하는 작가 자신도 역시 일상성으로서의 인간—곧 현존재로서의 인간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타인의 일상성을 부정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러한 범속성과 속악성을 부정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범속성과 속악성을 대신할 “삶의 대칭점”(「12월 12일」, 23)을 작가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타인의 일상성이 지닌 “頹落함”을 부정하는 현존재로서의 李箱을 작가는 긍정할 수 없다. “삶의 대칭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껏 “송곳같은—송곳 노릇밖에 못하는 재주로” (「慄怖의 記錄」, 203) 끝없는 부정만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퇴락한 일상성을 부정하는 자신의 부정정신도, 생산적인 부정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역시 퇴락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작가는 긍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李箱의 자기부정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상계가 상징계로 변하고 실재계로 이어지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반복구조”<sup>31)</sup>가 이상 소설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문제삼고 거기에 관심을 쏟는

31) J. Lacan, 권택영 옮김,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19쪽.

존재”를 실존이라 한다면, 이처럼 치열한 부정의 정신이야말로 李箱소설이 지닌 실존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부정의 정신은 「休業과 事情」, 「地圖의 暗室」 두 편에 나타나며, 이후의 작품에서 무력감이나 죄책감의 표출로서 계속 반복된다.

허구적 욕망을 대변하는 현재적 자아는, 「地圖의 暗室」에서는 신병에서 오는 죽음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기능하게 된다. 서술자인 ‘나’는 ‘그’(리상)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는 분열된 두 자아를 포괄하는 존재이다. 현재적 자아로서의 ‘그’는 백일몽 속에서 자신의 병든 육체로부터 정신을 따로 분리시킨다. 그리고 분리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를 결합시켜 또 다른 ‘리상’으로 부활시킨다.

기인동안잠자고 짧은동안누웠던것이 짧은동안 잠자고 기인동안누웠던그이다  
네시에누우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아홉시에서열시까지리상  
----나는리상한우스운사람을아안다 물론나는 그에대하여한쪽보려하는 것이  
거니와---은그에서 그의하는일을떼어던지는것이다. 태양이양지찍처럼 내려  
쪼이는밤에비를퍼붓게하여 그는레인코우트가없으면 그것은어찌하여 방을나  
선다(164)

서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작가의 의도적인 자아분리를 본다. 여기에는 세 명의 존재가 감지된다. 가)서술자로서의 ‘나, 나’그’라고 제시된 ‘리상’, 다)“네시부터 열시까지 리상의 하는 일을 떼어 던지고 방을 나서서 ‘리상’”등이다. 여기서 나)의 ‘리상’은 마치 산과 같은 위치에서 정신과 육체를 겸한 자신의 심신을 마음대로 분리하여 대상화하고, 정신적 ‘이상’을 육화시켜 활동하게도 한다. 그 결과 다)의 ‘리상’은 “黃布車에 올라 앉아 가서” 어떤 방에서 ‘K’를 만나며, 또한 “의무체육선생 리상”도 만나는데 그들은 현실에 갇힌 ‘리상’이다.

어떤방에서그는그는손가락끝을걸린다 (중략) 왜그는평화를발견하였는지  
그에게묻지않고의례한K의바이블얼굴에그의눈에서나온한조각의만의보자기를

조각만뒀고가버렸다. (중략) 그는그책임의무체육선생리상을만나면 곧경의를 표하여그의얼굴을리상의얼굴에다문질러주느라고 그는수건을쓴다. 그는리상의 가는곳에서하닌일까지를묻지는않았다. (중략) 그는그와관계없는나무사람옷심 지어K를찾으러나가는것이다 사실빠나나의나무와스케이팅여자와 스커이트와 교회에가고만K는그에게관계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자리로 그는그를 옮겨 놓아보고싶은마음이다 그는K에게외투를얻어그대로돌아서서입었다뿌듯이 꽤 감이잔등으로걸쳐있어서비릿키지않는다(166-167)

‘그’(정신과 육체를 함께 가린 ‘리상’) → 정신만으로서의 ‘리상’ → 정신 적 자아의 육화(부활)로서의 ‘리상’의 순서로 연쇄분열을 일으킨 ‘리상’은 결국 “장엄하게 승천하지만”, ‘리상’의 환상은 자신을 마치 신과 같은 처지에 두고, 남아있는 영혼을 다시 육화(肉化)시킨다.

K는그에게 빌려주었던저고리를 입은다음양시가렛트처럼극장으로몰려갔다 고그는본다 (중략) 그는그의모자를벗어땅위에놓고그가만히있는모자가가만히 있는틈을타서 그의구둣바닥으로힘껏내려밟아보아버리고싶은마음이 좋아리살 구뻐까지내려갔건만그것에서장엄히도 승천하여버렸다.

남아있는박명의영혼 고독한저고리의 폐허를위한완전한보상그의영적산술 그는저고리를입고 길을길로나섰다(171-172)

이처럼 현재적 자아로서의 ‘리상’은 자아를 거둬거둬 분리시키고 수없는 ‘리상’을 장송(葬送)하고, 수없는 새로운 ‘리상’을 탄생시킨다. 정신의 ‘리상’을 육화시키고, 병든 육체를 지닌 ‘리상’을 장송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육체 안에 있는 결핵균을 장송시키고, 새로운 건강한 육체를 지닌 ‘리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적인 환상(phantasy)을 통한 일시적 자위는 현실적 으로는 결국 자기기만이다. 이것은 불안의 원인을 찾고 정면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식으로서의 불안은 회피”<sup>32)</sup>

32) K Horney, 앞의 책, 49쪽.

이다. 의도적 환상을 창조하여 대상을 주지화(周知化, intellectualization)하고 부정(denial)하려는 방어기체에 해당된다. 이러한 양상은 결핵을 회화화하고 의인화하여 야유하는 일련의 시<sup>33)</sup>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욕망의 허구성은 '리상'의 본래적 자아에 의해서도 간파된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自歎에서 드러난다.

그는 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을 버리지 않고서 버리지 못하느냐 어디까지라도 괴로움이었음에 변동은 없었구나 그는 그의 행렬의 마지막의 한 사람의 위치가 끝난 다음에 지긋지긋이 생각하여 보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중략)---나날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한도는 점점 늘어나니 그가 들어갔다 가는 언젠지 처음 있던 자리로도 나오 수는 염려 없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차츰 차츰 그렇지도 않은 것은 그가 알면서도 그러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는 확실히 모르는 것이다(175-176).

인용한 부분을 제대로 띄어쓰기를 하여 읽어보면 통절하고 진지한 자탄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탄은 자신의 무력감을 확인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며, 이러한 무력감의 원인은 폐결핵에 의한 죽음의 예감에서 오는 것이다. 폐결핵에 의한 갈등은 본문 중의 "침구 속에 반쯤 강살아진 그의 몸덩이를 보고 봉투는 침구라고 생각한다"(165), "셋까만 핏조각이 땡그렁 소리를 내이며 떨어져 깨어질 것이다"(165) 등의 구절에서 암시된다. 또한 죽음의 예감은 "죽음이 평행사변형의 법칙으로 보이르샤르의 법칙으로 그를 떼민다"(170)는 표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처럼 「地圖의 暗室」은 '리상'이 지닌 현재적 자아가 백일몽의 환상을 통하여 죽음의 강박관념을 벗어나고자 하나, 본래적 자아에 의해 그러한 시도가 무위임이 드러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극성이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33) 시 「아침」, 「行路」, 「내과」, 「咯血의 아침」 등 참조.

#### 4. 글쓰기 주체의 존재론적 위상과 글쓰기 방략

앞의 작품분석을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듯이, 이상은 사랑의 슬픔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글쓰기로 나아갔으며 기존 문학의 존재론적 위상을 전복시켜 픽션문학의 허구성을 폭로하였다. 즉, 글쓰기를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려고 하면서도 역으로 그 의미 자체를 글쓰기를 통해 다시 해체시켰다. 이렇게 이중적 양상을 지닌 글쓰기는 유기체와 같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한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여 소멸하는 것과 같이 글쓰기는 텍스트로 생성되어 언어라는 질료를 통해 성장을 하여 그 양상이 멈추는 것(더 이상 작품이 쓰여지지 않은 상태)으로 소멸한다. 그렇지만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영혼을 갖고 있듯이 이상의 글쓰기는 언어적 활동을 멈췄다 하여도 독자를 통해 다양한 상상과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

결국 이상은 글쓰기를 통하여 유한적 생명을 지닌 자신의 생물적 존재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추구한 것이다.<sup>34)</sup> 언어세계는 이것을 가능케 하였고, 수사학과 인간의 이성은 이것에 합법칙성을 부여하였다. 생성텍스트에 나타난 무의식적 언어는 이상의 감성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이며 현상텍스트는 이성의 작용에 의해 이것을 다시 질서 있게 배열하여 놓았다. 텍스트 생성과 구성에 있어서도 이상의 감성과 이성의 대립에 의한 것이며, 생활인으로서의 삶과 예술인으로서의 삶 역시 감성과 이성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삶이 드러난 글쓰기의 밑그림에는 감성과 이성의 대립적 양상이 파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립적 양상은 인간의 삶의 특징을 규정짓는 하나의 요소로서 플라톤은 『티마이우스』<sup>35)</sup>에서 인간의 삶의 목표는 이성과 감성의 대립에서 벗어나 이성(nous)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34) 우정권, 『한국현대문학의 글쓰기 양상』, 월인, 2002, 143쪽.

35) 보다 구체적인 것은, 박윤호, 『자연의 질서와 무질서—플라톤의 <티마이오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참조.

한다. 감각적 지각들이나 욕망에 의해 생기게 된 무질서한 운동들은 조화와 질서를 상징하는 이성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삶이 조화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이성과 감성은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만드는 운동성을 지니고 있어 이성적인 것은 동일성의 원이 되고 감각적인 것은 타자성의 원이 되며 동일성의 운동이 타자성의 운동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성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이들 사이의 운동에 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생성은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어 그 생성을 성립시키는 요건들로서 만듦의 직접적인 원인인 匠人(데미우르고스)과 本(idea)으로서의 형상 그리고 주어진 질료적 요소들이 있다. 匠人(데미우르고스)는 언제나 '불변의 상태로 있는 것'을 본으로 삼고, 그에게 주어진 '가시적이고 정지해 있지 않고 조화롭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질료적 요소들을 질서로 인도하여 세계를 창조하는 자(者)이다.<sup>36)</sup> 그리고 장인(匠人)은 본에 가능한 닦도록 아름답고 훌륭한 것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형태와 수를 이용한다. 수학적 것이 지성적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긴 것이다. 이상이 꿈꾼 이상적 세계란 자신이 모방자에서 장인과도 같은 제작자가 되어 이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을 이성으로써 가능하게 만들며 참된 삶이 있는 절대세계이다. 이것의 기하학적 형태와 숫자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37)</sup>

다만, 이상은 기하학적 절대세계를 지향하면서도 현실의 현상계적 삶을 잊어버릴 수 없었기에 이성과 감성의 대립에 의한 작가와 지식인, 비평가의 모습을 모두 갖고 있다. 작가는 세상에 대해 어떻게 언어로 형상 하여 놓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어 언어 자체가 목적이 된다. 반면에 지식인은 자신의 사유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언어의 사용을 수단으로 한다. 언어를 목적으로 한 작가의 모습으로 된 글쓰기는 시적인 언어로

36) 플라톤, 『플라톤전집-티마이오스』, 상서각, 1968

37) 이상 소설에서의 기하학적인 숫자의 형태와 이것이 갖는 수사적 방략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우정권, 앞의 책, 145-148쪽 참조.



되어 있으며, 지식인적 모습으로 된 글쓰기는 기하학적 세계와도 같은 관념적인 언어로 되어 있다. 작가와 지식인은 모두 세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비평가는 작가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다르다.

이상은 자신의 삶을 대상으로 하여 시적인 언어와 기하학적 관념어로 기호화시켜 놓기도 하지만 자신의 언어를 순전히 대상으로 하여 비평적 기능을 지닌 언어를 구사한다. 작가와 지식인, 비평가로서의 이상의 글쓰기는 "서로 교환되고, 서로 침투하며, 서로 합쳐지는 것, 그것은 바로 글쓰기의 시적이면서 비평적인 이중 기능"<sup>38)</sup>으로 작용을 하여 자신의 <나>를 순수한 언어의 기호로 변환시키기도 하면서 또 다시 그 언어를 해체시켜 통합된 코드의 체계로 만들지 않는다. 비평가의 역할을 하면서도 결정적이며 이데올로기적 힘을 지닌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그 해답에 대한 열쇠를 다시 작가의 언어로 되돌려 놓는다.

결국 이상의 글쓰기는 언어와 메타 언어 사이의 불명확한 공간에 위치한다. 불명확한 공간은 의미가 형성되기 이전의 기의를 지니지 않은 상태이다. 기의는 "이차적이고 상징적인 기의이다. 문제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텍스트가 그렇게도 특수한 유형의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sup>39)</sup>

그러므로 글쓰기의 주체인 이상은 모방자와 제작자 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예술가가 갖는 존재론적 위상을 글쓰기로 드러낸 것이다. 1930년대의 어떤 예술가보다 근대적 풍모를 지닌 이상은 삶의 진리를 획득하기 위해 고뇌하고 방황하며 인간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생의 전부를 던진 댄디스트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二十世紀의 영웅이 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는 것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모순과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용납하지 않은 이상은 기하학적이면서 관념적인 언어로써 이데아와 같은 절대세계를 지향하였다. 절대세계는 언어의 세계와 같으며

38) Vincent Jouve, 하태환 옮김, 『롤랑 바르트』, 민음사, 1995, 100쪽.

39) 위의 책, 112쪽.

현실에 있지 않은 상상과 환상의 세계이기도 하다. 결국 도달 할 수 없는 환상의 세계를 지향함으로써 픽션 문학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끊임 없이 자신의 존재를 글쓰기를 통하여 되묻고 있다. 결국 글쓰기란 이상의 삶 자체이며 삶의 실천이기도 하여 글쓰기의 주체인 이상은 작품의 바깥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며 또한 생활인으로서의 작가의 삶을 부정하여 문학적 기호로 있게 된다. 나아가 이상에게서의 글쓰기란 삶 자체이며 현실적 삶의 통로가 막힌 한 나비가 취할 수 있는 환상이자 이상적 세계의 실천적 장이기도 한 것이다.<sup>40)</sup> 1930년대 한국 근대문학의 대표적 모더니스트인 이상은 질곡의 삶을 글로 옮겨 놓았으며 천형과도 같은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워나가기 위해 글쓰기로서 또 다른 삶의 세계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 5. 맺음말

본 고의 출발점은 일제강점기 작품 속에서의 작중인물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작품의 서사구조의 전환이나 복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선에 머문 경우도 있겠으나, 질병의 모티프가 시대적 현실(혹은 아우라)의 우회적 표현을 위한 암시나 수사적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가정에 입각점을 두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입론은 문학연구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 소설에 나타난 병리성과 상징성을 추출함으로써 문학의 현실대응력을 조감하는 또 하나의 단서를 해명하는 작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고는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할 경우 우선 이상의 소설의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출발했다. 이상 소설 텍스트가 가지는 두드러진 특성은 사적 체험을 소재화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의 소설의 창작모티프로써 채용된 사적 체험은 가족관계·신병·여성관계 등에서

40) 우정권, 앞의 책, 156쪽.

오는 갈등이다. 특히 신병 체험에서 오는 갈등은 내포작가의 퍼스낼리티를 신경증적 나르시스트로 고착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신병과 죽음에 대한 예감은 그의 전기 소설의 주된 모티프가 된다. 그러나 그의 후기 작품에서 이러한 신병 체험은 여성체험과 함께 사회성의 확대를 위한 소재와 기법 차원에서 활용된다. 결국 그의 사적체험의 소재화 경향은 소외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천에 대한 저항으로서 마니에리즘적인 나르시즘<sup>41)</sup>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지점에서 이상의 소설은 결국 시대상황의 축에서 만나게 될 여지도 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작품에서는 나르시스트의 형태를 통하여 소외구조와 만나게 되며, 궁극적으로 이들 인물의 기본적 갈등의 원천은 아노미에 의한 소외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 사회는 가치규범의 사실, 군국주의적 억압, 비인격적 관료주의, 부박한 물질주의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 속에서 개체는 자기실현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고정화된 소외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소외현상은 외면상 실직, 사회주의 운동의 좌절, 신병 등으로 나타나며, 내면적으로는 자기비하와 무력증, 현실도피, 신경증적 고착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상 소설에서의 '은유로서의 질병'의 모티프는 지식인으로서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와도 밀접한 상관성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질병은 결국 주체의 욕망이 좌절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李箱은 신경증적으로 분열된 서술자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닥친 정신적 위기와 식민지자본주의 말기에 접어든 조선사회가 지닌 병리적 현상을 풍자적으로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李箱의 창작태도는 병든 사회에 대한 인식과 소재로서의 자신의 사적체험을 융합시킨 것이다. 신경증적으로 분열된 서술자의 즉자적(卽自的)이며 퇴폐적인 형태를 통하여 일상성을 부정하는 것, 그럼으로써 주체의 실존적 존립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상 소설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소설에서의 신체 증상의 배후를 원인으로 갖는 이러한 억압과 질환의 측면들은 1930년대 소설 속에서의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식민지

41) A. Hauser, 김진욱 역, 『예술과 소외』, 종로서적, 1982, 153-159쪽 참조.

근대성과도 무관할 수 없는 측면을 지닌다.

본 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상 소설에 나타난 '은유로서의 질병'의 모티프와 그 기제의 병리적 상징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상의 글쓰기 방략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대상 작가 및 작품을 좀 더 확대해서 이 시기 소설의 질병모티프와 그것이 갖는 상징성 및 수사적 전략과의 상관관계를 해명한다면 일제강점기 소설에서의 은유로서의 질병모티프와 그 기제의 병리적 상징성이 보다 명쾌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후일의 과제로 미룬다.

- 핵심어: 결핵(폐병), 신경성, 병리성, 신경쇠약, 광기, 비극, 내부, 낭만성, 근대성, 기제, 히스테리, 세균설, 실연, 나르시즘, 마니에리즘, 방략

<참고문헌>

- 권택영, 『종생기: 증상으로 읽는 이상 문학』,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9집, 2005,12.
- 강용운, 『이상 소설의 서사와 의미생성의 논리』, 태학사, 2006, 11-36쪽.
- 고 은, 『이상평전』, 청하출판사, 1992, 182쪽.
- 김면수, 「결핵의 수사와 임상적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 제19호, 2001.
- 김윤식, 「결핵의 속성과 결핵문학」,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8, 68-279쪽.
- 김윤식,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 김일구, 「질병과 문학: 문학 속의 역병의 4가지 공간」, 『신영어영문학』 제27집, 신영어영문학회, 2004,2.
- 김지혜,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병리적 몸 인식과 근대적 주체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제45집, 2009
- 김형중, 『소설과 정신분석』, 푸른사상, 2003.
- 박찬부, 『현대정신분석비평』, 민음사, 1996.
- 변학수,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2006.
- 서경석, 「초기 춘원소설의 병 모티프와 그 성격」, 『외국문학』, 1995, 겨울호.
- 신동원, 「세균설과 식민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 2002년 봄호.
- 신범순 외, 『이상문학연구의 새로운 지평』, 도서출판 역락, 2006.
- 신연우, 「이황문학에서의 질병의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18집, 2003.
- 안미영, 「이광수 초기 단편에 나타난 ‘병’모티프 고찰」, 『어문논총』 제37호, 2002, 12,
- 우정권, 『한국현대문학의 글쓰기 양상』, 월인, 2002, 143-156쪽.
- 이경훈, 「이상의 또다른 질병에 대하여」, 『이상, 철천의 수사학』, 소명출판, 2000.
- 이보영, 「이상과 일본 작가들」, 이상 70주기 특집 『문예연구』 제53집, 2007,

여름.

- 이상문학회 편, 『이상소설작품론』, 도서출판 역락, 2007.
- 이승원, 「21세기 초 위생 담론과 근대적 신체의 탄생」, 『문학과 경계』 창간호, 2001년 여름호.
- 이재복, 『한국문학과 몸의 시학』, 태학사, 2004, 195-231쪽.
- 이종화, 「1930년대 한국 심리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25~147쪽.
- 임명권,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은유로서의 질병의 근대적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7호, 2002.
- 조효제 옮김,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7.
- C. 한스컴, 「근대성의 매개적 담론으로서 신경쇠약에 대한 예비적 고찰- 박태원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연구』 제29집, 2005.
- A. Hauser. 김진욱 역, 『예술과 소외』 종로서적, 1982, 153-172쪽.
- Bruce Fink,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 Horney, K., *The Neurotic Personality of Our Time*, W.W. Norton and Company, Inc., New York, 1967.
- J. Lacan, 권택영 역,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19쪽.
- R. Girard, *Desire, and the Novel*,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6.
- Susan Sontag,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 사라 네틀턴, 헨리 지거리스트, 이희원 옮김,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몸과 마음, 2000.
- Walter J. Ong, 이기우 · 임명진 옮김,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Abstract >

A Study on Pathology of Korean Modern Novels and Literary  
Complication

Jeon Heung-nam

More about Lee Sang literature, many researchers tried to find the literary world through a variety of ways. But nobody yet has clearly more difficult to identify the nature of Lee Sang Literature. Lee Sang Literature research is still in progress. Clarification of the Lee Sang Literature can be likened to a puzzle game. Without reasoning and imagination, it is difficult to explain literature.

In this context, this paper pays more attention on the motif of the disease appeared in the novel and focuses on the pathological symbolism in the motif of the disease. Also this work will be the impetus to get attention to importance of literary implications about the motif of the disease and the pathological symbolism in modern novels. Also, finding the motif of the disease in modern novel , the pathological symbolism in the motif and literary implications about the pathological symbolism will be another clue to the reality responsiveness of literary.

Especially finding disease as a metaphor in Lee Sang novel and pathological symbolism about disease motif is expected to be naturally linked to Lee Sang writing strategies. In the near future, I will explain the correlation about the motif of the disease in Japanese colonial period novel , the symbolism of the motif of the disease and the rhetorical strategies of that. Disease as a metaphor and pathological

symbolism about disease motif is clearly identifi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novel. Furthermore, based on analysis of these issues of consciousness and arguments, we can extend the period of analysis about postwar novels.

- Key- Words: tuberculosis(pulmonary consumption), neurosis, pathology, neurasthenia, madness, the internal, the romantic, modernity, device, hysteria, original sin, bacillus theory, narcissism, manierisme, strategy.

\* 이 논문은 2010년 7월 17일 투고되었고, 8월 1일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